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1.(수) 12:00 배포 2026. 11. 11.(수) 10:00

글로벌 투자자와 결제주기 단축(T+1) 논의

- 제3차 「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」 개최 -

-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「결제주기 단축(T+1) 로드맵」을 설명하고 의견 청취
- 해외 투자자의 '역외원화결제시스템'을 활용한 국내 첫 투자 사례 소개
-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해외차입 규제 완화 등 결제편의 제고상황 공유·점검

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1.10(화) **제3차 「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」**를 개최(화상)하여, 11.3(화)에 발표된 **'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(T+1) 로드맵(초안)'**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**설명**하고 **의견**을 **청취**하였다. 아울러, 최근 외환·자본시장 **제도개선 진행상황**을 공유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건의사항과 실제 투자과정에서 겪는 **애로사항**을 청취하였다.

회의에는 BlackRock, Vanguard, Amundi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함께 **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(ASIFMA)***, **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(GFXD)****가 참여하였다. 또한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.

* Asian Securities Industry & Financial Market Association
** Global Foreign Exchange Division(국제금융시장협회 산하 외환부문 협의체)

[1] 「결제주기 단축(T+1) 로드맵」 설명 및 의견 청취

먼저,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'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(T+1) 로드맵(초안)'의 **주요내용**과 **향후 추진계**획을 **글로벌 투자자**들에게 **설명**하였다. 정부와 관계기관은 **거래·결제정보 자동화 인프라**를 구축하고, 국내·외 금융회사 등 **시장 참가자**가 시스템과 업무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**충분한 준비기간**을 **부여**하는 한편, **6개월 이상 통합 테스트**를 거쳐 시장 준비상황을 확인한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.

아울러, 정부는 결제주기 단축을 시행함에 앞서 **거래·결제업무 자동화**, **충분한 준비기간과 테스트** 및 **원화조달 여건 개선** 등이 **선행**되어야 한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을 **충분히 인식**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 향후 '로드맵'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**글로벌 투자자**들의 **의견**을 **지속 청취**하면서, 결제주기 단축시 발생할 수 있는 **거래·결제 애로사항**을 **점검**하고 **필요한 사항**을 **보완**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투자자들은 정부가 **'로드맵' 주요내용**과 **향후계획**을 적극적으로 **설명**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**우려사항**을 **지속 청취**하는 점을 **긍정 평가**하였다. 다만,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**업무부담 증가**로 **실제 업무처리**에 **어려움**이 발생할 수 있다는 **우려**를 제기하였다. 아울러, 투자자들은 **결제실패시 대응방안**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들에 대해 **지속적으로 논의·보완**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[2] 「역외 원화 결제망」을 통한 첫 국내투자 사례 공유 등

정부는 **외국인 투자자**가 현재 시범운영 중인 **'역외원화결제시스템'**을 활용하여 **국내**에 **투자**한 **첫 사례**도 소개하였다. 10월말, **싱가포르 소재 금융투자회사**가 현지 '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'(RFI-K)*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,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전한 후 '한은국제망'을 통해 국내로 송금 및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. 이를 통해, **새로운 원화 국제화 인프라**가 **실제 투자**에 **문제없이 활용**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* 해외에서 원화거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외국 금융기관

아울러, 정부는 **지난 협의체 당시**(9.29일)와 비교해 **'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'(RFI-K) 등록기관 수**가 **6개에서 11개로 확대**되었으며, 현재 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 4개 국내은행이 참여중인 '한은국제망'의 **'직접참가기관'***에도 **내년초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**들이 추가로 **참여**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.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내년 1월 '한은국제망'의 정식 가동을 앞두고, 해외 금융기관들에게 **적극적인 참여**를 **당부**하였다.

* 국내에서 RFI-K의 원화 통합 계좌를 관리하고, 한국은행의 '원화국제결제망(BOK-Wire^{Int})'을 통해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은행

이와 함께,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**원화 활용 편의**를 높이기 위해 **외환 규제 개선**도 **지속**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 11.2일부터 **외국계 증권사 국내법인**의 경우, **해외 원화차입**시 재정경제부 사전신고 기준금액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**상향**하였으며, **국내지점**의 **해외 원화·외화 차입**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**허용**하였음을 소개하였다.

[3] 기타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사항 해소 등

정부는 또한 주요 **국내 수탁은행들**(Local Custodians)과 **간담회**(10.19일)에서, 제3자 환전 자금에 대한 이른 컷오프 타임 적용* 등 **외국인 투자자**들이 **겪는 투자 애로사항**을 **전달**하고, 투자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**업무관행**을 **개선**해 줄 것을 **당부**하였다고 설명하였다.

* 해외 투자자가 국내 수탁은행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증권투자를 위한 원화 자금을 환전하는 경우(제3자 환전), 환전 자금의 투자자별 확인·대조 등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반적인 송금 시한보다 더 이른 송금 시한이 요구되는 관행

투자자들은 '역외원화결제시스템'을 활용한 실제 투자사례가 나타나는 등 **외환·자본시장 제도개선**이 **투자 현장에서 활용**되고 있음을 **긍정적으로 평가**하였다. 다만, 개선된 제도가 실제 투자과정에서 원활히 활용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**업무체계 정비**, 일부 **거래관행 개선** 및 제도 **운영기준 명확화**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정부는 앞으로도 「**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**」를 통해 **글로벌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**하면서, 외환·자본시장 **제도개선의 성과**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**활용·체감**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**애로사항**을 **지속 점검**하고 **개선방안**도 **마련**해나갈 계획이다.

<재정경제부>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	홍석찬 (hsc1006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